



삶의 開發과 自然의 保存

李 禹 世

오랜 만에 故郷에 가보았다.

마음 같아서는 한달에 한번쯤은 가고 싶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 現實이다.

故郷이란 본시 멀리 두고 그리는 것이겠거니 그렇게 자위하며 살 수 밖에 없다.

그건 그렇고 故郷 옛 동네를 찾아 간 나는 깊은 감회에 사로 잡혔다.

「山川은 依旧…」라는 말이 있지만 탈바꿈한 삶의 모습과는 달리 自然경관은 옛 그대로가 아닌가?

나이가 좀 들면서 웬일인지 꿈 속에 더 자주 거닐게 되는 그 논두렁 길들도 폭이 좀 넓어지기는 했지만 基本 構圖는 옛 그대로이다.

그 산봉우리하며 개천·연못 또한 그렇다.

이 모든 것이 나의 가슴속 깊이 새겨져 있으니 흐르는 세월과는 관계없이 나는 언제까지고 그 景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故郷-이 낱말 만큼 人間을 사로잡는 것도 드무리라.

나는 시멘트 바닥이나 콘크리트 숲을 故郷으로 모시고 있지 않는 것을 크나큰 福으로 생각한다.

故郷·鄉愁의 鄉字는 바로 시골 향字가 아닌가.

비록 기차소리가 10里 밖에서 들려오는 시골중의 시골이지만, 그리고 낙보다는 어려웠던 일들이 더 많이 기억에 남지만 그곳은 나의 뿌리요. 나의 기반인 것이다.

내가 지금 어디를 어떻게 가고 있는 나의 出發點을 잊을 수는 없는 것.

그 出發點에 잠시나마 다시 서서 지난 半世紀를 머리 속에 띄워 올리는 감회란 정말 각별한 것이다.

故郷 山川은 언제까지고 나에게 힘과 슬기의 원천이 돼 줄 것이다.

故郷사랑은 그래서 끝없는 것이 아닐까.

故郷의 조그마한 自然을 아끼는 마음들이 이 땅의 大自然을 소중히 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고 그 마음들이 한데 모여져 全國土公園化를 이룩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

삶의 開發과 自然의 保存은 相剋관계가 아니다.

그의 兩立과 調和를 추구하는 것이 오늘을 살며 내일을 내다보는 사람들이 안고 있는 課題가 아닐까.

〈서울신문社長·國立公園協會 理事〉